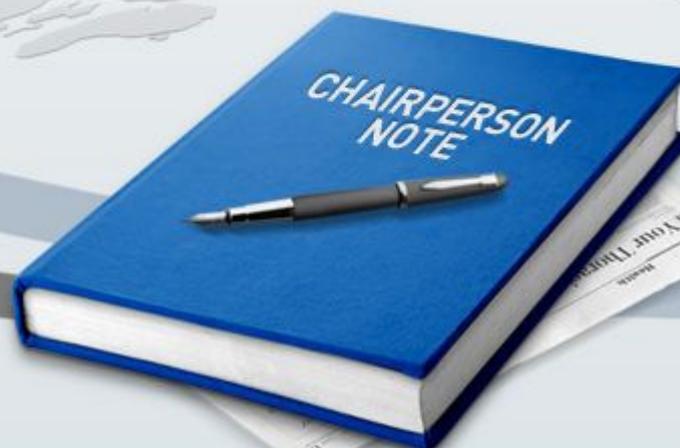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NOTE

- 경제 이슈
 - 미국 4분기 GDP성장률 -0.1%
 - 2월 산업활동 소폭 반등
- 경영 노트
 - 리스크의 특성에 따른 관리 기법
- 사회 트렌드
 - 세계 1위 성형대국은 한국
 - 2040년엔 성인 절반이 고혈압·당뇨
- 저널 브리프
 - 조직원의 성격 유형 'DICS'
- 洗心錄
 - 나로호와 기업 생태계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www.hri.co.kr>로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4분기 GDP 성장률 -0.1%

- 1월 30일 발표된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0.1%를 기록해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소비 및 주택경기 회복, 투자 증가 등 미국경제 청신호가 나타남
 - 성장률 감소 배경 : 재정지출 감축 가능성에 대비해 4분기 일시적 국방비 지출이 22.2% 감소하였고, 기업 재고도 판매 예측량보다 매출이 컸기 때문에 20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
 - 소비 및 주택 경기 회복 : 4분기 소비는 2.2%로 증가하였고, 내구재 소비가 2년 만의 최고 폭인 13.9% 증가. 주택건설도 15.3% 증가
 - 투자 증가 :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전 분기에 -1.8%였던 투자도 4분기엔 8.4% 기록

- 현재 미국이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GDP 속보치는 향후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재정절벽 우려 등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

□ 12월 산업활동 소폭 반등

-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다소 부진하였으나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이 회복세를 보임
 - 생산 : 제조업생산은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영상음향통신, 반도체 및 부품 등의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4% 증가
 - 투자 :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 등에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월대비 9.9% 증가, 건설투자 중 건설기성은 건축공사 호조로 전월대비 5.8% 늘어 2개월 연속 증가세
 - 소비 : 소매판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내구재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줄어 전월대비 1.1% 감소

-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산업활동 회복, 수출 증가, 동행 및 선행지수 상승 등으로 향후 국내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리스크의 특성에 따른 관리 기법¹⁾

- 대내외 불확실성의 증가로 성과 관리 못지않게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정책은 초보적인 수준
 - 리스크 관리는 성과 관리와는 달리 기회와 성공보다는 위협과 실패 같은 부정적인 면에 초점
 - 대부분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정책은 많은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직원들이 지키도록 강요하는 수준에 불과
 - 그러나 기업은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위협을 관리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잘못된 리스크 관리 정책은 오히려 위협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
- 기업은 리스크를 종류별로 나누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 후에, 각 종류별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갖춰 대응해야 함

< 리스크의 특성에 따른 관리 기법 >

| | 내 용 |
|--------|--|
| 내부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관리 가능하고, 제거하거나 피해야 하는 내부 리스크 • 효율적인 방법으로 리스크의 발생을 막는 것이 핵심 • 회사의 미션, 가치, 규범과 경계, 표준운영체계, 내부 통제 및 내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 예방 가능 |
| 외부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정치적 재난이나 거시경제적 급변과 같은 통제불가능한 리스크 • 리스크가 실제로 현실화되었을 때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 스트레스 테스트, 가상 시나리오 작성 및 경영진과의 워게이밍(War-gaming)을 통해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력 제고 |
| 전략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수익 고위험 투자안을 채택하는 것과 같이 전략적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리스크 • 기업은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주고 실제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 폴크스바겐은 전략 목표 달성을 방해할 만한 리스크를 찾아보고, 개별 리스크별로 리스크 이벤트 카드를 만들어 회사 운영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 발생 가능성, 선행지표, 완화 방법 등을 향시 검토 |

1) ‘Managing risks: A new frame work’(Harvard Business Review, 2012.06)와 ‘완벽한 리스크 관리, 때론 재앙이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2.02)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 세계 1위 성형대국은 한국²⁾

- 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한국이었음(인구 1000명당 13.5건)
 - 2위는 그리스로 12.5건이었고, 뒤를 이어 이탈리아(11.6건), 미국(9.9건), 콜롬비아(7.9건), 대만(7.8건) 등이 상위권에 올랐음
 - 한국은 인간관계가 너무나 조밀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성형이 많은 이유가 되고 있음
- 성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비절개 시술(주름, 반점, 털 제거 등)이었는데,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보톡스 시술이 조사 대상국들에서 300만 건이 넘었음
 - 절개시술 중 가장 많이 이뤄진 성형은 지방 제거였고, 2·3위는 가슴, 코 성형이었음

□ 2040년엔 성인 절반이 고혈압·당뇨³⁾

- 급속한 고령화로 고혈압·당뇨 인구가 2040년에는 지금의 배에 가까운 1842만 명에 달할 것으로 KDI가 추산
 - 30세 이상 성인 인구 중 고혈압 또는 당뇨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앓고 있는 유병자 비율이 2040년 49.1%에 달할 전망
 - 유병자가 크게 늘어나는 직접적 원인은 식생활 변화와 개인의 건강관리 실패 때문이지만, 구조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의 탓이 큼
- 2010~2011년 기준으로 고혈압·당뇨 인구는 이미 1073만 명에 달함
 - 30세 이상 인구 셋 중 한 명꼴로서, 의료비 부담 급증으로 빈곤층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일부 중산층도 병원비 부담으로 휘청거리고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줄이거나 재산을 처분한 가구가 41만 가구에 달하며, 저소득층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사채를 쓴 경우도 8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2011년 저소득층 가구 중 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는 30.6%. 소득의 30% 이상도 9.8%에 달함

2) '세계1위 성형대국은 한국이었다'(중앙일보, 2013.2.1)를 요약 정리함

3) '2040년엔 성인 절반이 고혈압·당뇨'(중앙일보, 2013.2.1)를 요약 정리함

□ 조직원의 성격 유형 'DISC'⁴⁾

- 다음 4가지 성격 유형에 따라 조직원에 대한 대응을 달리하는 것이 조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

① 주도형 (D: Doer) : 외향형 & 업무지향형

- 매사에 핵심을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으로 실행력과 추진력이 강한 'What' 형의 행동주의자
- 지도력이 강하고 독립적이어서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지시받는 것을 싫어하며 고집이 세다는 단점
- 도전적 업무에 적합하며 개인적 성취를 위한 자유·권한을 부여하되 인사고과, 평점 등과 관련해 '압력'을 주는 것이 효과적

② 사교형 (I: Interactive) : 외향형 & 인간관계지향형

- 인간관계에 적극적이고 타인에게 우호적이며 정이 많은 성격으로 언변에 능한 'Who' 형의 관계주의자
-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말이 많으며 끈기 있게 업무를 완수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침착하지 못하다는 단점
-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므로 '칭찬과 인정'이 효과적이며 문제 직원에게는 현재 행동이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할 것

③ 안정형 (S: Supportive) : 내향형 & 인간관계지향형

-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으로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How' 형의 협력주의자
- 느긋하고 수동적이며 변화 및 위험부담을 기피하고 결정을 미루는 등 우유부단한 것이 단점
- 안정과 화목을 중시하므로 팀 기여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문제 직원에게는 본인의 행동이 팀에 끼칠 피해를 언급할 것

④ 신중형 (C: Calculating) : 내향형 & 업무지향형

-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성격으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점검하는 'Why' 형의 완벽주의자
-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 비판에 예민하고 융통성이 부족하여 소통 및 인간관계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
- 칭찬과 지적 모두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바탕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

4) '성격 유형에 맞춰 응대법 달리하라'(매경이코노미, 2013.01.23) 참조

□ 나로호와 기업 생태계

‘자국 땅에서 자국 기술로 자국 위성’을 쏘아올린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 11번째 국가가 되었다. 역경을 거쳐 수차례의 발사 시도에서 성공을 이뤄낸 열정에 먼저 경의를 표한다. 발사지인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외나로도에서 이름을 따 온 나로호. 정식 명칭은 KSLV-I(Korea Space Launch Vehicle-I)이며, 100kg 급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다. 거대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진일보된 우주 개발을 위한 기술과 경험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류의 도전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구환경 변화에의 대응, 자원 확보는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원 발굴 등을 목적으로 우주, 해양, 극지 같은 미개척 분야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이다.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3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많게는 GDP의 0.4%까지 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광대한 공간으로 꾸준한 개척 대상이다. ‘유엔미래보고서2030’에 의하면 향후 북극은 빙하가 녹아 석유나 다른 자원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산업 및 교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처럼 인류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천지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동의 미래를 위한 소위 ‘뉴 프론티어(New Frontier)’의 확산이다.

기업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산업구조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업종 구분조차 모호해지고 있다. 시시각각 수많은 제품들이 생성되고 소멸된다. 요즘 기업들에게는 신성장동력 찾기가 우선 과제이다. 그래서 아직 시작되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한 블루오션은 여전히 유효하다. 경쟁에 의해 혼탁해지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말한다. 게임의 룰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점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시장은 창의를 기반으로 한 개척정신에 의해 얻어질 수 있으며 기회 또한 무한하다.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Nothing great in the world has been accomplished without passion.

- 게오르크 빌헬름(Georg Wilhelm)